

# 냉정과 열정 사이? 성욕과 수행 사이!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② 불교의 성문제에 대한 소고

이야기가 출가자와 재가자의 수행과 덕목으로 나갔으니 이참에 성(性)의 문제까지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마침 저팔계가 자제를 못하고 담벼 들었다가 곤욕을 치르는 것이 바로 색욕 때문이잖아요? 고전에서 색(色)이란 곧 성적인 것을 말했지요. 남성중심 사회에서는 특히 여색이라는 말로 쓰였고요. 유가(儒家)에서도 색(色)에 대하여는 말이 많았습니다. 도덕적인 성실함을 비유하는데 진정한 성실함이란 '따치 못있는 성적 대상을 좋아하듯이, 나쁜 뱀새를 싫어하듯이' 해야 된다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유가에서도 인간이 지닌 가장 강렬한 자연적인 지향성을 성적인 것으로 본 것이지요. 그리고 도덕적인 추구가 것처럼 강렬하고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랐다고나 할까요? 몇 십 년 전만해도 여자 분들께 '색사하다'고 말하면 어땠을까요? 잘못하면 따귀 맞을 판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자 분들께 '색사하지 않다'고 말하면 어떤 거 같아요? 역시 잘못하면 따귀 맞지 않을까요? 이쿠~ 성차별적인 발언이랑요? 꼭 여자만 그런 게 아니랑요? 그렇군요. 제가 남자 다보니 역시 그런 차별적인 관점이 나오고 말았네요.

그렇지만 세상이 달라졌으니 "그런 고리타분한 관념 다 때려치워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유가에서는 사람을 도덕적인 동물로 규정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점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는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길은 도덕적으로 사는 길이고, 그러한 사람다운 마음을 추구하려는 의지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적인 추구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의 추구가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힘들지요. 그것을 금기시하고 낮추어보려는 시각은 사람이 타고난 자연스런 요소를 좌악시하거나 비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연성을 무시하고 어떤 이념의 틀에 억지로 맞추려 하는 것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것의 추구가 유일한 가치인 것처럼 여기는 현실도 참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높은 이상은 완전히 실종되고, 성적 욕망을 비롯한 욕망추구가 유일한 가치처럼 여겨지는 지금의 현실도 문제라는 것이지요.

지금 주제가 성적인 것에 대한 태도의 문제지요? 너무 멀리 돌아가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한 작은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죄로 보거나 억압하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의 추구가 마치 제일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거나 해서 안 된다. 사람답게 사는 길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상들이 제시되며, 거기에 성의 문제 등도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충 이런... 애구, 말하다 보니 어중간한 절충에 그치고 만듯 하군요. 뭐 그렇다 해도 절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적당히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교에서는 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요? 이것이 정말 문제이고,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상 불교에서의 성 문제를 다루려 해 보면 정말 앞이 막막하는 듯한 갑갑함이 있습니다. 왜냐구요? 논의 자체가 시작도 안 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것은 또 왜일까요? 출가자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성 문제에 대한 출가자의 관점이 불교 전체를 지배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출가자의 성 문제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요? 정말 철벽방어를 연상하게 하는, 성문제에 대해선 무조건 차단위주로 가는 것이 출가자의 성에 대한 시각입니다. 출가자의 규범을 정하고 있는 율장이 무엇부터 시작하는지 아시지요? 바로 성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율장을 읽다가 정말 충격적인 표현을 발견하였습니다. 비구 스님의 색계(色戒)를 설하는 대목에서 여성의 성기를 독사의 아가리처럼 여기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것이 불교 전체의 성문제에 대한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위에서 말한 대로 성 문제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내지 부정의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재가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구요. 성적인 것은 정말 추하고, 자손을 두기 위해 어쩔 수 없어 하기는 하지만 청정한 생활을 해치는 저열한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은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부부간의 성생활을 하면서도 "부처님, 할 수없이 죄업을 좀 짓겠나이다"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하고나서는 열심히 그 죄를 참회하고 청정한 삶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요? 그렇다면 정말 비참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 리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처님이 오시더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진 자연스런 본성을 좌악으로 보거나 하는 것은 가르침의 본질일 수가 없는 것 아니냐구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것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명에 휩싸여 있고, 연기의 진리에 눈멀어 있기에, 나라는 집착을 바탕으로 욕망을 일으키기에,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는 탐욕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

## 금욕의 출가자 상이 불교입장 굳어져 출·재가 막론 교단 내 성담론 전무 욕망과 정진의 중도길 걸어야

래서 그것들이 고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반대로 무명을 벗어나 깨달음을 얻고, 연기의 진리에 눈을 뜨고, 나라는 집착을 벗어나고, 무소유의 자세로 삶을 살아나간다면, 자연적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재가 되는 것이고, 불국도 건설의 바탕이 되는 것 아닐까요?

중생의 관점에서 중생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저 나름으로는 당당합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을 좌악시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 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관(不淨觀)이라든가 백골관(白骨觀) 같은 관법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관법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사람의 몸뚱이를 퐁, 오줌, 피, 고름 같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가축주머니로 보거나, 죽고 나서 썩어 하얀 백골이 된 모습을 관조하거나 하는 관법입니다. 더럽다든가 깨끗하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일 따름이지요. 그런 관법을 행하는 것은 참 모습을 바르게 보는, 진리를 보는 것이 아



그림·최주현

닙니다. 육체에 관한 탐착이 지나치게 큰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대치(對治)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육체는 더럽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지요. 사람의 몸뚱이가 그저 그러할 뿐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친 탐착하는 것을 깨기 위한 방편으로 말해지는 것이이지요.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인 안되는 것이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러한 관점들이 불교의 가르침인 것처럼 둔갑하고 행세하는 것이 현실 불교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에 입문하면 제일 처음 듣는 것이 그런 류의 가르침 아닌가요? 무상하다, 덧없다, 욕망을 벗어나... 등등의 부정적인 표현들이 난무하지 않나요? 첫 번째 말한 '무상하다'라는 것은 사실을 말한 것일 뿐인데, 거기서 세상의 일을 하찮은 것으로 보는 감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하지는 않던가요? "욕망을 벗어나"는 말 속에는 욕망을 추구하고 더러우며, 죄업을 짓게 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담고 있지 않은가요? 물론 이런 표현들이 전혀 필요 없다가거나, 이유 없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상함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디로 달려 나가지도 모르고 욕망에 끌려나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역시 우리의 그런 병을 고치기 위한 대치(對治)의 방편이라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성문제와 욕망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게 된 것은 출가자에게 요구된 삶이 불교의 이상적 삶으로 된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

지요? 성 문제에 제한하여 좀 더 부연해볼까요? 스님들은 재가자에게 모든 생계를 위탁합니다. 하다못해 스님의 노동도 금지하는 것이 불교의 계율입니다. 그렇게 생계를 위한 것은 모두 재가자에 위탁하면서, 모든 힘을 수행에 쏟으라는 것이이지요. 그런데 삶을 이끌어어나가는 힘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도 통제가 힘든 것이 바로 성적인 충동입니다. 식욕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성욕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식욕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성욕이 아닐까 싶습니다. 먹는 것은 나눠 먹는 것이 미덕일 수 있지만, 성적인 대상은 나누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 독점적인 욕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출가자의 계율에서 그토록 엄하게 금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출가자의 삶과 재가자의 삶이 전혀 다른 조건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존중받는 출가자의 삶 자체를 그대로 이상적인 삶으로 여기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성에 대하여는 하찮게 보고, 좌악시하고 금기시하는 것이 불교의 입장인 것으로 암암리에 굳어진 것 아닐까요? 이런 입장에서는 현대사회의 큰 문제인 성의 문제에 대해 건강하고 건설적인 조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가 현대인들의 삶에 참된 지침을 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그런 그렇고요, 서유기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현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다 출가자의 신분입니다. 손오공을 손행자, 사오정을 사화상으로 부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 출가자들이, 서역으로 길을 가지러가는 거룩한 출가자들이 색계를 범하면 역시 안되는 일이겠지요?

##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신성불상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화 031-533-7724, 010-5223-5174

## 사찰연등및전선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 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광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원(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재등행렬용품

일사형 S형 T분리형 LED배서형 LED홀더배형 건전지초

방생, 탐돌이, 각종 행사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